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포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戰)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도전!

제 6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 30일(화)개강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병행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가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티문화권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적 각성과 신학 훈련의 기회를 주고자 우리교회 부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을 통해 해마다 개최하는 김치신학 세미나에 올해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교계 지도자 34명을 초청하였다.

6월 9일까지 계속될 이번 세미나 기간동안 이들은 새벽기도회와 기도원 방문을 통해 영성훈련을 하며 성경적 교회성장원리, 소그룹운동, 한국교회약사, 한국교회의 기도생활, 전도와 사회적 관심, 신학교육 등에 관한 강의와 토론으로 신학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오후에는 신학교, 기독교 대학, 성서공회 등을 방문하는 현장교육이 있으며 이번에 배운 신학적 지식을 토대로 자국복음화를 위한 구체

적인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김치(KIMCHI) 라는 이름은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영어 첫 글자를 모아 만든 것으로 우리 고유의 음식인 김치를 연상하도록 고안한 것인데 김치처럼 전 세계교회의 잃어버린 영적인 입맛을 돋우워주는 뜻을 담고 있다.

1989년 제2차 세계로잔대회에 참석한 이 중 윤 목사는 당시 국제 총무였던 토마스 왕 박사와 세계복음화 비전을 나누던 중 『21세기 운동(AD 2000 & Beyond Movement)』을 창설하고 자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적 각성과 신학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1990년에 동구의 7개국 지도자를 초청하여 제1차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제2차는

1991년에 중국계 목회자, 1992년도 제3차에는 인도와 스리랑카 등 힌두교권 목회자, 1993년도 제4차에는 아프리카 21개국 목회자 그리고 작년제 제5차에는 러시아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김치세미나는 이와 같이 문화권별로 교계 지도자를 초청하여 자국 복음화에 기여하도록 해왔다.

우리교회는 이번 세미나기간의 새벽기도회는 특별기도회로 하고 지역복음화 또는 세계복음화의 핵심이 되는 목회자의 갱신을 통해 복음 확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려는 김치세미나의 목적이 잘 성취되도록은 교회가 기도로 동역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이슬람권 복음화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슬람권에도 성령의 불길이가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 각자가 기도의 불씨가 되자.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 프로그램

	5. 29.(MON)	5. 30.(TUE)	5. 31.(WED)	6. 1.(THU)	6. 2.(FRD)	6. 3.(SAT)	6. 4.(SUN)	6. 5.(MON)	6. 6.(TUE)	6. 7.(WED)	
5:30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Dawn Prayer for Pakistan & Bangladesh										
6:00	개인경건의 시간 Private Quiet Time										
7:00	방글라데시목회자 도착 Arrival (Bangladesh)	아침식사 Breakfast							기자회견 Press Interview	아침식사 Breakfast	
8:30	개회예배(Opening Worship)										
10:00	강의 I Lecture I	강의 II Lecture II	강의 III Lecture III	강의 IV Lecture IV	강의 V Lecture V	교회학교탐방 Sunday School	강의 VI Lecture VI	강의 VII Lecture VII	강의 VIII Lecture VIII		
10:50	휴식 Intermission										
11:10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주일 예배 Worship Service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12:00	점심식사 Lunch										
13:00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기독교방송국, 교회 방문 CBS, Church	기독교대학, 교회방문 Univ., Church	신학교 방문 Theological Seminary	산상기도 Mountain Prayer	간증 Testimony	목회자세미나 참관 Pastoral Seminar	시내관광 City Tour	강의 IX Lecture IX		
15:00	국가별전략회의 Nat'l Strategy Meeting										
18:00	저녁식사 Dinner										
19:00	파키스탄 목회자 도착 Arrival (Pakistan)	환영만찬 Welcome Dinner	국가별 모임 Nat'l Meeting	자유시간 Free Time	다락방 참관 Upper RM Study	묵상의 시간 Meditation	자유시간 Free Time	만찬 Dinner	교계만찬 Dinner (Ch. Leaders)	폐회예배 Closing Worship	
20:30	그룹기도 Group Prayer										
21:00											

* 6. 8.(THU) - 파키스탄 목회자 출국 Lv. for Pakistan * 6. 9.(FRD) - 방글라데시 목회자 출국 Lv. for Bangladesh

▶가정의 달 설교 ④

모범적인 가정

사도행전 21장 7 - 14절

이 중 운 목사

홀 륭한 가정은 좋은 사회와 아름다운 국가와 은혜스러운 교회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 문제를 소홀히 하고서 사회가 밝고 교회가 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기초공사 없이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를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 가정으로부터 좋은 것을 취하기만 하고 가정을 위해서 아무 것도 기여 하지 못하여 마치 기생충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둘째로 가정과 경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셋째로, 가정과 교회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가정, 가정을 든든히 하는 교회로서 이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빌립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모범적인 가정을 본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빌립의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의무에 충실한 것으로 만족하는 인색한 가정이 있고, 주어진 책임보다 훨씬 많은 봉사와 헌신과 회생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빌립은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도 전력하였고 다른 사람의 집까지 쳐 줄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마땅한 의무 이상의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자녀 양육에 성공한 가정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빌립의 집에 네 딸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성직에 자신을 바친 빌립의 자녀들은 역사가(歷史家) 유세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깨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덕욕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골라디아서 6장 9, 10절)

우스에 의하면 후일에 소아시아의 히에라블리로 이주하여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손에게 명예나 권력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바램이요, 자녀에게 신앙을 계대해 주는 일에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가정은 자손들에게 영적인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본을 보였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즐겁게 해주려는 노력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바르게 전수시켜주는 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하였습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가정은 자녀에게 믿음을 바로 계대해 주는 가정입니다.

3. 이웃에게 봉사할 줄 아는 가정입니다.

빌립의 가정은 신앙적으로 이방인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요, 봉사에는 방관자가 없는 복음을 실천하는 일꾼의 가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으로 유랑자처럼 피신해 다니는 수많은 믿음의 길손들의 피난처요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저들의 빌립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합심하여 기도했고 영광 속에 새 힘을 충전받아 새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내 집만을 위하지 않고 할 수 있는대로 남을 공개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해야 합니다(갈6:10).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 영적 사역의 기초가 되는 곳이요, 복음에 합당한 인격을 수련하는 장이요, 복음 전도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생명의 약속이 있는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단위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가정이 모인 곳은 문제의 교회가 될 수 밖에 없고 은혜로운 가정이 모여야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빌립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진리이신 성경말씀에 기초를 두고 형제를 사랑하되 특히 믿음의 권속을 서로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민족사회, 아름다운 지구촌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순례자 컬럼 ✦

정당성보다는 진실성을

가정은 기득권에 의해 존속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실한 노력이 있어야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 본성이 도사리고 있는 한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 상대방을 얽매어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은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공동체의 집단인 국가와는 달리 정당성보다는 진실성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부부간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한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환경이 변하여 이용할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사랑하고 신뢰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처럼 버릴 수 있다면 제시된 이유가 얼마나 정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리는 정당해야 하지만 정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인간의 상대적 정당성보다는 나약하지만 진실성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 제 6차 킴치세미나에 붙여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 파키스탄 복음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전 재 옥

이화여대 교수, 이슬람연구원 원장,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 친구들』 선교회 부이사장

‘거룩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모슬렘 국가인 파키스탄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관심밖에 밀려나 있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1961년부터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하여 지금은 30여 명의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전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 교포교회도 두 개의 큰 도시 - 카라치와 라호르 - 에 모이고 있습니다. 외교관계와 무역도 1988년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연구하기 위하여 유학하는 학생들도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파키스탄으로 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서 우리나라에 노동자들을 보내고, 유학생들을 보내고, 무역의 길을 넓히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파키스탄 선교를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지도를 앞에 놓고 매일의 기도 시간에 파키스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선 파키스탄의 모슬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파키스탄에는 모슬렘이 97%가 넘다고 하니 온 나라가 모슬렘인 것입니다. 공산권이 복음 사역에 개방되었듯이 모슬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갖도록 기도합시다. 국

민의 절대 다수가 모슬렘인 국가가 세계에 33개국 있는데 그 중 27개국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키스탄은 인도에서 이슬람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되어 매우 철저하게 모슬렘 법을 따르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교육 수준이 높지 못하고, 인종 배경이 힌두교의 쿠르하종족을 조상으로 하고 있어서, 파키스탄 내에서 모슬렘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받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들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일과 목회를 확신과 사랑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합하여 무시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선교 실재를 잘 이해하고 선교정책을 잘 검토하면서 인정받고 복받는 선교사들로 굳건히 서도록 기도합니다.

둘째는 우정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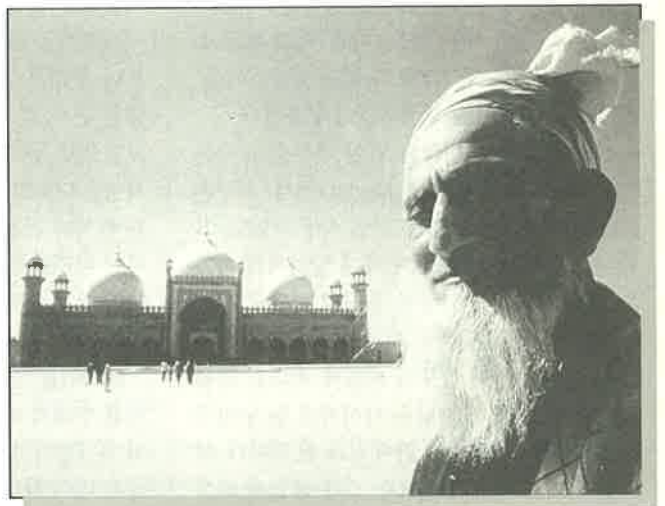
여기서 파키스탄 대사관 가족들, 무역하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 노동자들(구로동과 성남에 많이 있음), 유학생들을 이웃으로 만나고 소박한 대접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개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도 방식은 그들에게 전혀 수용될 수 없으므로 대접의 선교, 좋은 이웃의 선교(눅 10:30 - 38)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도, 결과에 매이지 말고 말

씀을 전하고, 좋은 전도자료를 건네 주고 성경을 주고, 대화를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진솔하게 깨닫도록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모슬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보면, 대개 우정과 성경을 읽는 데 있었다고 봅니다.

셋째는, 현지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야 할지를 그 상황에 따라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단기 선교요원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 교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과 진료팀이 나갈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그곳에서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넷째는, 파키스탄에 관하여 읽고 이슬람교와 그 문화에 대하여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 이슬람교(Islam 教): 이슬람이란 ‘신에 복종한다’라는 뜻으로 이슬람 교도가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며, 이슬람 교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였다는 코란을 경전으로 삼고 알라를 유일한 전능의 신으로 믿는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교, 모하메드교, 회교(回教), 회회교라고도 하며 이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을 모슬렘(Moslem)이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다.

* 6월의 행사 *

- 5월 30일(화) / 제 6차 킴치 신학 세미나 시작 (6월 9일까지)
- 4일(주일) / 정기제직회
- 5일(월) /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종강
- 6일(화) / 홍해작전 개전(~ 25일까지)
- 8일(목) / 킴치 신학 세미나 폐회예배
- 21일(수) / 학습, 세례식???
- 25일(주일) /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
- 25일(주일) / 새가족환영회
- 27일(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일

농어촌 교회를 통한 민족복음화를 생각해 볼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 개최

6월 19일(월)에
『100교회 운동』에 결연한 농어촌교회 목회자 대상으로

우리교회는 민족복음화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100교회 지원 운동』을 펴고 있다. 전도회 혹은 다락방 별로 농어촌의 교회와 자매결연하여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과 함께 기도과 지속적인 관심으로써 농어촌 교회의 자립을 돕고 격려하려는 운동이다.

통한 민족복음화 전략이 의논될 것이다.

또한 전도위원회에서는 지원 교회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이 세미나가 연초부터 진행해 온 『100교회 운동』의 진행사항을 점검해 보고 보완해야 할 점, 결실 등을 돌아볼 수 있는 중간 평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도위원회(위원장: 박철훈 장로)에서는 오는 19일(월)에 현재 우리교회와 자매를 맺은 106개 교회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 특별세미나를 갖기로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 전도 정책과 아울러 농어촌 복음화를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5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환영회는 새가족 여러분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우들과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5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5월의 새가족 ***

김정선	박상용	김하영	박수진
정용혁	전금자	정선호	박용신
김남수	정미옥	박우철	박우현
박우영	이지혁	곽정임	곽희규
김명용	박근지	김진희	박미현
박지훈	이순숙	김창무	엄상익
신정행	엄정아	엄정옥	송숙자
오영숙	오동우	이경희	김귀천
서명희	장인순	장인수	송운주

이성기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땅을 파고 사는 곳을 '움'이라 했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우면 '우리'가 되었다. 일인칭 복수형으로 쓰이는 '우리'라는



며 우리 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를 지향한다.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전국 교회를 위해 섬기며, 세계복

말의 어원이 여기에서 찾아진다. 여러 '우리'가 같은 마당에 사는 것을 '마을'이라 했고 조금 넓어지면 '고을', 그보다 넓은 곳은 '서울', 큰 울을 '한울(하늘, 한 우리)'이라 불렀다.

1964년 토론토 대학의 마셜 맥루한 교수는 그의 책 <Understanding Media>에서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 단어는 우리나라에도 60년대에 알려지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는 하나의 마을(村)처럼 되었다.

한 울타리 안에 살듯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이웃이라 할 때, 오늘날은 아시아가 한 우리가 되었고, 세계가 한 우리 안에 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다. 이웃을 '우리'로 부르는 공동체 의식은 더불어 일하고 서로에게서 편안함을 느끼며 충족없이 서로 친숙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21세기가 5년 남짓 남았다. 21세기를 준비하

음을 위해 지구촌의 한구석에서 김치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감격을 맛본다.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란 거대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의 모임으로, 선포와 봉사의 사명, 교제와 교육의 사명을 다하려는 성도의 모임이다. 성경적인 바른 해석과 전전한 신학체계를 갖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구원의 복음 속에 담겨진 사도적 사명과 예언자적 비판의식을 치우침 없이 적용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이와 같은 향도적 사명감과 세계를 우리의 이웃으로 보도록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되 마음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정진하여야겠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시2:8).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이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① 5월 28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바울 목회와 영성(박형운 박사)

② 6월 5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기술사회와 영성 (오성춘 박사)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복음화를 위하여
2.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새로와 질 수 있도록
3. 5월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